

맥경(脈經) 권5의 문헌적 고찰

¹釜山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課程, ²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教授

鄭勝瀚¹ · 金基旺^{2*}

A Literary Analysis on the Fifth Chapter of the 『*Maijing*』

Jung Seunghan¹ · Kim Kiwang^{2*}

¹Graduate Student at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at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seeks to contribute to restoring ancient literature related to Bianque through literature analysis of the fifth volume of 『*Maijing*(脈經)』.

Methods : Literature referenced in the fifth volume of 『*Maijing*(脈經)』 which are 『*Huangdineijing*(黃帝內經)』, 『*Nanjing*(難經)』 among others were examined.

Results & Conclusions : The fifth volume of 『*Maijing*(脈經)』 cites 『*Huangdineijing*(黃帝內經)』, 『*Nanjing*(難經)』, 『*Bixi Zhenfa*(敝昔診法)』, 『*Ni Shun Wu Se Mai Zang Yan Jing Shen*(逆順五色脈藏驗精神)』 etc. Based on the question and answer format of the text, it seems the fifth volume of 『*Maijing*(脈經)』 is a collective of three different lines of medical texts. It shows traces of Bianque's Zangfu theory where the Stoma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Five Zangs instead of the Spleen. It also contains the diagnostic method of symptom expression time based on distance between sites of pathological expression. Moreover, description of the number of pulses during one cycle of breathing (inhale/exhale) indicates that the early theories of the Bianque School has been preserved.

Key words : *Maijing*, Bianque, diagnosis

* Corresponding Author : Kim Kiwang.

Division of Applied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Tel: +82-51-510-8466, E-mail: kimgiwang@hanmail.net

Received(October 21, 2019), Revised(October 30, 2019), Accepted(October 30,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한의학이 술기로서 그리고 학문으로서 정립된 시기가 언제일까? 한의학(韓醫學)을 예전엔 한의학(漢醫學)이라고 불렀기도 하거니와 한의학에서 경전으로 여겨지는 황제내경(黃帝內經)과 상한잡병론(傷寒雜病論)이 저작되었을 한(漢)나라 시기가 아닐까? 만약 이 시기를 연구한다면 한나라 때로부터 멀지 않은 서진(西晉)시기(서기 3세기경)에 왕희(王熙)가 편찬한 『맥경(脈經)』은 한의학 정립 시기의 의학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주목할 만한 의서이자 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맥경』은 현존하는 최초의 맥진(脈診) 전문의서인데 서진 시기까지 전승된 여러 고대 의서를 수록하고 있어 고대 의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서적이다¹⁾.

현존 『맥경』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권5」는 장중경논맥제일(張仲景論脈第一), 편작음양맥법제이(扁鵲陰陽脈法第二), 편작음양맥법제삼(扁鵲脈法第三), 편작화타찰성색요결제사(扁鵲華佗察聲色要訣第四),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제오(扁鵲診諸反逆死脈要訣第五) 이렇게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편, 3편, 4편, 5편의 편제(篇題)를 보면 이 네 편은 편작학과 또는 편작과 관련한 의가들이 저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편작학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2012년 7월 중국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시의 소위 노관산(老官山)에서 출토된 전한(前漢)시대 죽간(竹簡) 의서들 중 일부가 편작학파의 저작으로 생각된다는 보고²⁾³⁾⁴⁾에 따라 관심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관산에서 출토된 죽간 의서들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서 그 원문을 볼 수가 없고, 단지 성도중의약대학(成都中醫藥大學)

이나 성도문물고고연구소(成都文物考古研究所) 같은, 문헌에 직접 접근 가능한 연구기관에서 출판한 서적과 논문을 통해 일부만 엿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방민우, 김기옥⁵⁾이 『황제내경(黃帝內經)』, 『맥경』, 『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 이하 ‘난경’으로 약칭함)』을 비교하여 편작맥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김성호 등⁶⁾은 『황제내경』, 『맥경』, 『난경』, 『천금익방(千金翼方)』에 나타난 편작학파의 진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편작학파의 저술이라 생각되는 단일 문헌은 남아있지 않지만, 『맥경·권5』를 통하여 편작학파의 실전(失傳)된 의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맥경·권5』를 문헌적으로 연구하여 편작학파의 글을 비롯한 『맥경·권5』에 수록된 여러 고대 의서들을 연구하여 『맥경·권5』가 가진 문헌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맥경』의 판본(版本)은 소위 하대일본(何大任本)이라 부르는 판본계통과 용흥본(龍興本)이라 부르는 판본계통으로 나뉜다⁷⁾.

하대일본은 남송(南宋)시기 가정10년(嘉定十年, 1217년)에 간행되었다. 하지만 이 판본은 현재엔 존재하지 않고 이후 원·천력3년(元·天曆三年, 1330년)에 하대일본을 다시 각본(刻本)한 광근서당각본(廣勤書堂刻本)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광근서당각본은 현존하는 판본 중에서 송판본의 원형과 가장 비슷한 판본이라 일컬어진다.

남송 가정2년(嘉定二年, 1209년)에는 광서조사간본(廣西漕司刊本)이 간행되었지만 이 역시 현재까지 전해져오고 있지는 않다. 광서조사간본은 이후 원·태정4년(元·泰定四年, 1327년)에 재간행되는데 이를 용흥본이라 한다. 현존하는 용흥본으로는 명·성화10년(明·成化十年, 1474년)에 간행된 소주필옥각본(蘇州畢玉刻本)이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1) 廖育群, 傅芳, 鄭金生 著, 박현국, 김기옥, 이병욱 共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 서울. 일지사. 2007. pp.331-335.
 2) 梁繁榮, 王毅, 李繼明 主編. 揭秘敝昔遺書與漆人: 老官山漢墓醫學文物文獻初識.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pp.1-2.
 3) 呂茂東, 馮嫻嫻. 醫祖扁鵲其人其事新考. 管子學刊. 2019. 127(1). pp.73-81.
 4) 杜鋒. 老官山醫簡中的“敝昔”與扁鵲名號. 名作欣賞. 2014. 487(8). pp.15-16.

5) 방민우, 김기옥. 扁鵲脈法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3). pp.143-165.
 6) 김성호 외 3인. 扁鵲學派의 診斷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8. 31(3). pp. 33-58.
 7) 蔣力生. 略論《脈經》的學術成就與版本系統. 江西中醫藥. 2007. 38(1). pp.79-80.

표 1. 『맥경·권5』의 문헌* 인용 현황

『맥경·권5』	글자 수	인용한 글자 수	인용비율(%)**	인용형태
장중경논맥	289	289	100	같은 문장
편작음양맥법	794	154	19	내용만 인용
편작맥법	270	73	27	내용만 인용
편작화타찰성색요결	1142	346	30	일부는 같은 문장, 일부는 내용만 인용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	1760	838	48	같은 문장

* 맥경 저작 이전의 문헌. 황제내경, 난경, 상한론, 역순오색맥장협정신, 폐식진법을 포함한다.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기하였다.

을 비롯하여 『소문·평인기상론』¹⁸⁾, 『난경·14난(十四難)』¹⁹⁾의 일부와 의미상 중복된다. 이들 문헌에 실린 내용과 편작맥법의 전반부 73자는 문장이 서로 똑같은 것이 많아 완전한 인용 관계라 할 수는 없으나 모두 정상 호흡에 대비한 동맥 박동수의 관찰 방법, 즉 소위 손지맥(損至脈)의 진단과 그 임상적 의의에 관해 적은 것들이다.

(4) 편작화타찰성색요결(扁鵲華佗察聲色要訣)

편작화타찰성색요결 편은 1142 자로 이루어져 있다²⁰⁾. 그 중 이 편 전체 분량의 약 9% 정도에 해당하는 100 자의 경우 『소문·오장생성(五藏生成)』, 『소문·피부론(皮部論)』²¹⁾과 『황제내경영추(黃帝內經靈樞, 이하 ‘영추’로 약칭함)·논질진척(論疾診尺)』, 『영추·오색(五色)』, 『영추·경맥(經脈)』²²⁾에서 그 문장

표현 방식은 다르나 같은 내용이 인용되었다. 그리고 이 편 전체 분량의 약 17% 정도에 해당하는 198 자의 경우 『영추·한열(寒熱)』²³⁾, 『소문·맥요정미론(脈要精微論)』²⁴⁾의 일부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즉 이 편에서 전체 분량의 약 30%는 다른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5)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扁鵲診諸反逆死脈要訣)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 편은 1760 자로 이루어져 있다²⁵⁾. 그 중 이 편 전체 분량의 약 9% 정도에 해당하는 160 자가 『난경·17난(十七難)』²⁶⁾에, 그리고 전체 분량의 약 39% 정도에 해당하는 678 자가 『소문·대기론(大奇論)』²⁷⁾에서 확인된다. 즉 전체 분량의 약 48%는 다른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맥경·권5』에 수록된 이상의 편들에서 확인되는 고문헌 인용 정황을 그림 1과 표 1에 요약한다.

16) 梁繁榮, 王毅, 李繼明 主編. 揭秘敝昔遺書與漆人: 老官山漢墓醫學文物文獻初識.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pp.97-112.
 17) 梁繁榮, 王毅, 李繼明 主編. 揭秘敝昔遺書與漆人: 老官山漢墓醫學文物文獻初識.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pp.86-89.
 18) 王冰 次. 黃帝內經素問.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19) 作者未詳. 八十一難經.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20) 王叔和 撰. 林億等 類次. 陳居偉, 郭玉晶 校注. 脈經.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p.91-96.
 21) 王冰 次. 黃帝內經素問.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22) 王冰 次. 黃帝內經素問.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22) 張志聰 次. 黃帝內經靈樞集注.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23) 張志聰 次. 黃帝內經靈樞集注.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24) 王冰 次. 黃帝內經素問.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25) 王叔和 撰. 林億等 類次. 陳居偉, 郭玉晶 校注. 脈經.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p.97-102.
 26) 作者未詳. 八十一難經.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27) 王冰 次. 黃帝內經素問.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표 2. 『맥경·권5』의 문답 형식과 문헌 계열

편제(篇題)	문답에 사용된 문사(問詞)와 답사(答詞)	문헌의 계열	비고
장중경논맥	문왈(問曰), 사왈(師曰)	중경 계열	
편작음양맥법			문답 없음
편작맥법	편작왈(扁鵲曰)	편작 계열	
편작화타찰성색요결			문답 없음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	편작왈(扁鵲曰), 경언(經言), 연(然)	편작/난경 계열	
	문왈(問曰), 사왈(師曰), 사기언(師記言)	중경 계열	

2) 문답의 형식

(1) 장중경논맥

의경에서 ‘문왈(問曰)’, ‘사왈(師曰)’이란 표현은 중경(仲景) 계열 문헌의 특징이다. 장중경논맥 편은 전체가 『상한론·평맥법』에서 인용되었기에 ‘문왈’, ‘사왈’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2) 편작음양맥법

편작음양맥법 편에는 문답의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3) 편작맥법

편작맥법 편은 경우 ‘편작왈(扁鵲曰)’이란 문답의 형식이 나타난다²⁸⁾. 이러한 문답의 형식은 그 표현 방식에서 드러나듯이 편작 계열 문헌의 특징이다.

(4) 편작화타찰성색요결

편작화타찰성색요결 편에는 문답의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5)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 편은 경우 ‘편작왈’, ‘경언(經言)’, ‘연(然)’ 같은 편작 또는 난경 계열 문헌의

특징적인 표현도 나타나면서 동시에 ‘문왈’, ‘사왈’, ‘사기언(師記言)’ 같은 중경 계열 문헌의 특징적인 표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²⁹⁾.

문답 형식에 따른 『맥경·권5』 각 편의 특징을 표 2에 요약한다.

3) 난경 일문(逸文)

『맥경·권5』의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 편에는 편작 또는 난경 계열 문헌의 특징적인 문답 형태인 ‘경언’, ‘연’의 문답 형식이 나타나며, 이러한 문답 형태의 단락이 두 차례 출현한다³⁰⁾. 첫 번째 단락³¹⁾은 현행본 『난경·17년』에서도 동일한 문장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두 번째 단락³²⁾은 현행본 『난경』³³⁾에서

29) 王叔和 撰. 林億 等 類次. 陳居偉, 郭玉晶 校注. 脈經.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p.97-102.

30) 王叔和 撰. 林億 等 類次. 陳居偉, 郭玉晶 校注. 脈經.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p.97-102.

31) 王叔和 撰. 林億 等 類次. 陳居偉, 郭玉晶 校注. 脈經.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p.97-98. “經言: 病或有死, 或有不治自愈, 或有連年月而不可已. 其死生存亡, 可切脈而知之耶? 然: 可具知也. 設病者若閉目不欲見人者, 脈當得肝脈, 弦急而長, 反得肺脈浮短而澁者, 死也. 病若開目而渴, 心下牢者, 脈當得緊實而數, 反得沈滑而微者, 死. 病若吐血, 復衄者, 脈當得沈細, 而反浮大牢者, 死. 病若譫言妄語, 身當有熱, 脈當洪大, 而反手足四逆, 脈反沈細微者, 死. 病若大腹而泄, 脈當微細而澁, 反得緊大而滑者, 死. 此之謂也.”

32) 王叔和 撰. 林億 等 類次. 陳居偉, 郭玉晶 校注. 脈經.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98. “經言: 形脈與病相反者, 死. 奈何? 然: 病若頭痛目痛, 脈反短澁者, 死. 病若腹痛, 脈反

28) 王叔和 撰. 林億 等 類次. 陳居偉, 郭玉晶 校注. 脈經.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p.90-91.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단락은 현행본 『난경』에 누락된, 잃어버린 문장일 가능성이 크다.

4) 현행본 황제내경과 전한(前漢)의 황제내경

후한(後漢)시기의 반고(班固)(AD 32-92)가 편찬한 전한(前漢)의 역사서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의 의경(醫經) 목록을 보면 『황제내경』 18권, 『황제외경(黃帝外經)』 39권, 『편작내경(扁鵲內經)』 9권, 『편작외경(扁鵲外經)』 12권, 『백씨내경(白氏內經)』 38권, 『백씨외경(白氏外經)』 36권, 『방편(旁篇)』 25권이 기록되어 있다³⁴⁾. 현행본 『소문』 81편과 『영추』 81편은 『한서·예문지』의 의경 중 『황제내경』 18권이 전해진 것이라는 학설이 있다. 『한서·예문지』의 『황제내경』 18권 중 9권이 『영추』 81편이 되고 남은 9권이 『소문』 81편이 되었다는 학설이다. 『침구갑을경(鍼灸甲乙經)』의 서문³⁵⁾이 이 학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소문』과 『영추』는 각각 완성을 대표하는 숫자인 9권 81권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두 책은 서로 독립적인 저작이며, 『한서·예문지』에는 2개의 독립된 책이 합쳐져 있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한서·예문지』의 다른 책의 분량을 계산해봤을 때 『한서·예문지』의 『황제내경』 18권은 현존하는 『황제내경』의 18편 정도의 분량이며 『소문』과 『영추』를 합한 162편을 모두 수록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위 학설은 잘못된 견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³⁶⁾.

浮大而長者, 死。病若腹滿而喘, 脈反滑利而沈者, 死。病若四肢厥逆, 脈反浮大而短者, 死。病若耳聾, 脈反浮大而澁者, 死。病若目眩暈, 脈反大而緩者, 死。左有病而右痛, 右有病而左痛, 下有病而上痛, 上有病而下痛, 此爲逆, 逆者死, 不可治。”
 33) 作者未詳。八十一難經。湖南電子音像出版社。中華醫典[CD-ROM], 長沙。湖南電子音像出版社。2003。
 34) 班固。漢書·藝文志。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Available from: <https://ctext.org/han-shu/yi-wen-zhi/zhs>
 35) 皇甫謐 著。針灸甲乙經。湖南電子音像出版社。中華醫典[CD-ROM], 長沙。湖南電子音像出版社。2003。
 36) 廖育群, 傅芳, 鄭金生 著。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共譯。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서울. 일중사. 2007. pp.166-167.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소문』과 『영추』는 분명히 『한서·예문지』에 수록된 『황제내경』 18권이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저자들은 위 학설이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 또 하나를 본 연구에서 추가하려 한다. 『맥경·권5』에는 편작 계열의 글이 실려있음을 앞서 소개하였다. 『맥경』의 저작시기를 고려해봤을 때 『맥경·권5』에 수록되어 있는 편작 계열의 글들은 『한서·예문지』의 『편작내경』 9권과 『편작외경』 12권에서 인용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현행본 『소문』과 『영추』에는 『맥경·권5』에 수록된 편작 계열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현행본 『황제내경』에는 편작 계열의 글이 들어있고, 이 글들은 『한서·예문지』의 『편작내경』 9권과 『편작외경』 12권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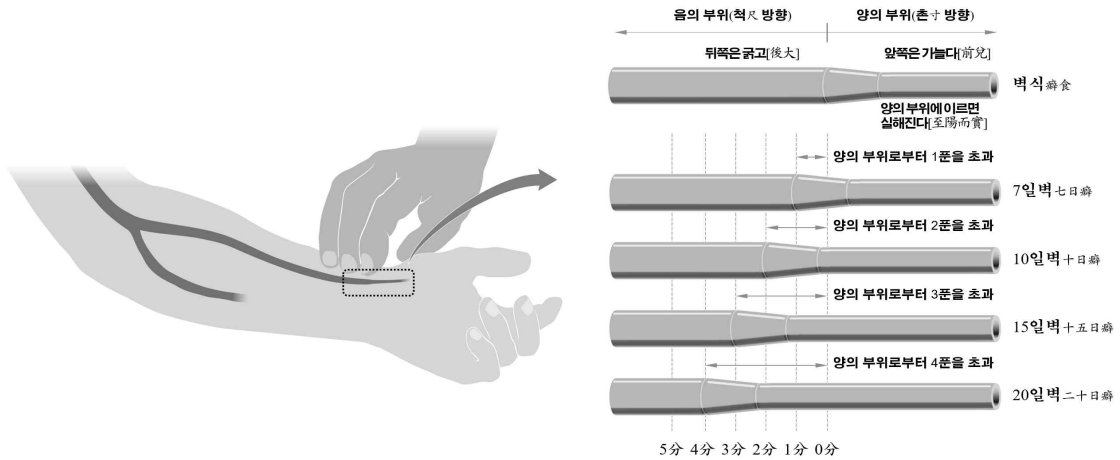
따라서 『한서·예문지』의 의경 중에서 『황제내경』 18권만이 현행본 『황제내경』에 계승된 것이 아니라 『편작내경』 9권과 『편작외경』 12권 역시 현행본 『황제내경』에 계승되었으리란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한서·예문지』의 『황제내경』 18권이 현행본 『소문』과 『영추』가 아니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2. '간·심·위·폐·신(肝·心·胃·肺·腎) 오장론(五臟論)'의 흔적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 편에는 간맥(肝脈), 심맥(心脈), 비맥(脾脈), 폐맥(肺脈), 신맥(腎脈)에 대한 문장과 더불어 육부(六腑) 중에선 유일하게 위맥(胃脈)에 관한 문장이 나타난다³⁷⁾. 이는 명확하게 간·심·위·폐·신을 오장(五臟)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오장의 맥과 함께 위맥(胃脈)을 병치시키고 있어 위(胃)의 위상이 여타의 장(臟)과 대등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간·심·위·폐·신(肝·心·胃·肺·腎)을 오장으로 간주하는 장부학설의 흔적으로 보인다. 이런 흔적이 나타난 것은 전한시기에 간·심·비·폐·신(肝·心·脾·肺·腎)을 오장으로 간주하는 장부학설과 동시에 위(胃)를 장(臟)의 하나로 보아 간·심·위·폐·신을 오장으로 간주하는 장부학설 역시 존재하였던, 두 학설의 혼재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³⁸⁾.

37) 王叔和 撰。林億 等 類次。陳居偉, 郭玉晶 校注。脈經。北京。學苑出版社。2014. p.100.
 38) 박재민, 김기왕.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1). pp.198-202.

그림 2. 이상 맥상이 나타나는 거리와 벽(癖)의 형성기간



위(胃)를 장(臟)의 하나로 보는 것은 편작학과의 특징 중 하나³⁹⁾로서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 편은 그 편제(篇題)에서 드러나듯이 이것이 편작학과의 글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이상 징후의 출현 거리에 따른 상태 추정

『맥경·권5』에는 이상(異常) 맥상(脈象)이 기준점에서 어디까지 떨어져서 나타나는가에 따라 질병의 예후를 판단하는 방법이 나타난다.

촌구(寸口)에서 척부(尺部)의 맥이 크고 촌부(寸部)(前)는 가늘고 예리하면서⁴⁰⁾ 촌부에 이르러 실패(實)하게 되는 것은 벽식(僻食)⁴¹⁾이다. 병맥(病脈)이 촌부 1分寸에 나타난 것은 7일간 형성된 벽

(癖)이고, 2分寸에 나타난 것은 10일간 형성된 벽이고, 3分寸에 나타난 것은 15일간 형성된 벽이고, 4分寸에 나타난 것은 20일간 형성된 벽이며, 4分寸을 지나면서 가운데 잠복되어 있어 그 곳을 넘어가지 않는 것은 반 년간 형성된 벽이다⁴²⁾.

그림 2에 도해한 바와 같이 척 부위에서는 맥관의 크기가 크다가 관(關) 부위를 지나면서 맥관이 가늘어지고 실패지는 것을 벽식이라 진단하였다. 맥관이 가늘어지는 위치가 촌을 넘어 척 부위로 넘어갈 때 그 거리가 길수록 시간적으로 더 긴 시간동안 형성된 벽이라고 진단한다(그림 2).

이렇게 이상 맥상이 기준점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질병의 예후를 판단하는 방식은 『사기·창공열전』에서도 나타난다.

환자의 맥을 절진(切診) 하였을 때 소양(少陽)⁴³⁾이 시작되는 부위가 대(代)한 맥상을 띠고 있었습니까. ……이 때에 소양 부위의 처음 1分寸 정도를 지나고⁴⁴⁾ 있었으므로 속에는 열이 있었으나 고름은 생

39) 黃龍祥. 扁鵲醫學特徵.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5. 21(2). p.206.

40) 태(兌): 『맥경』에서 맥상에 대한 표현으로 쓰일 때 ‘날카롭다’, ‘예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成百萬, 朴旻. 脈經卷三五臟의 虛·實·賊·微邪에 따른 脈象과 病證에 對한 研究 II.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5. 9(1).

41) 벽식(僻食): 벽식(僻食)으로 표기된 판본도 있다. (王叔和撰.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178.) 소화불량이나 음식부절(飲食不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王叔和 選. 韓水賢 新譯. 脈經新譯.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 208.) 글의 맥락 상 긴 시간동안 형성된 병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적취(積聚)의 뜻을 가진 ‘벽(癖)’의 의미대로 덩어리가 생겼다는 뜻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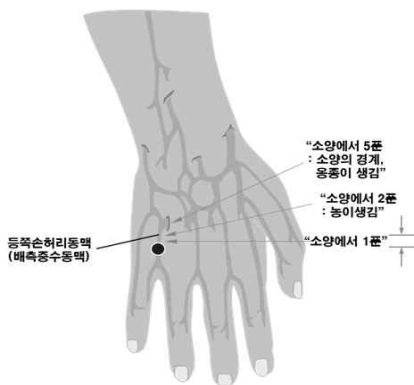
42) 王叔和 撰. 林億 等 類次. 陳居偉, 郭玉晶 校注. 脈經.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90. “寸口中後大前兒, 至陽而實者, 僻食. 小過陽一分者, 七日癖; 二分者, 十日癖; 三分者, 十五日癖; 四分者, 二十日癖; 四分中伏不過者, 半歲癖.”

43)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맥박이 뛰는 곳으로 액문혈(液門穴) 부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5푼에 이르면 소양의 경계에 이르게 되고, 8일에 이르러서 고름을 쏟고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2푼을 올라가서는 농이 생겼고, 경계(5푼)에 이르러서는 응종(臃腫)이 생겼고 고름을 다 쏟아내고는 죽었던 것입니다⁴⁵⁾.

여기에서 창공은 소양을 기점으로 박동 이상이 축지되는 동맥의 길이에 따라 병변의 진행 상태를 추측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그림 3).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진단 방식은 『창공열전』에서 뺨의 건조해진 부위의 길이를 통해 요통의 시작 시기를 추정 한 사례(17번 증례)⁴⁶⁾와 안색의 이상 부위의 길이를 통해 사망 시기를 예측한 사례(6번 증례)⁴⁷⁾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 소양을 기점으로 박동 이상이 나타나는 거리에 따른 병변의 진행상태



44) 관(關) : 『소문·병능론(病能論)』의 “在左當主病在腎, 頗關在肺, 當腰痛也.”에서 관(關)은 “이(移)”, “행(行)” 정도의 뜻으로 보인다. 본문의 관(關) 또한 같은 용례로 보인다.
 45) 司馬遷 著. 史記 扁鵲倉公列傳. 漢文大系·七.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7(中華民國76年). p.127. “切其脈時, 少陽初代 ……當其時少陽初關一分, 故中熱而膿未發也. 及五分則至少陽之界. 及八日則嘔膿死. 故上二分而膿發, 至界而臃腫, 盡泄而死.”
 46) 司馬遷 著. 史記 扁鵲倉公列傳. 漢文大系·七.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7(中華民國76年). p.140. “所以知建病者, 臣意見其色, 太陽色乾, 腎部上及界, 要以下者枯四分所. 故以往四五日知其發也.”
 47) 司馬遷 著. 史記 扁鵲倉公列傳. 漢文大系·七.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7(中華民國76年). p.132. “後五日死者, 肝與心相去五分, 故曰: 五日盡. 盡即死矣.”

4. 호흡 대비 맥박수에 대한 기술

『소문·평인기상론』⁴⁸⁾과 『난경·14난』⁴⁹⁾에서는 1 호흡에 4회 맥동(脈動) 또는 1호흡에 5회 맥동을 정상인의 박동수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맥경·권5』의 편작맥법⁵⁰⁾ 편에서는 1식(一息)에 2회 맥동이 정상인의 박동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 출도된 성도 노관산 한대 분묘의 죽간 의서 『역순오색맥장험정신(逆順五色脈藏驗精神)』⁵¹⁾과 『폐석진법(敝昔診法)』⁵²⁾에도 『맥경』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등장한다. 호흡 대비 맥박수가 문헌에 따라 다르게 된 이유는 ‘식(息)’의 의미가 1회 호기에서 1회 호흡으로 바뀌면서 호흡대비 맥박수의 서술도 바뀌게 되는데 기인한다⁵³⁾(표 3).

III.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맥경·권5』의 인용 문헌 현황을 살펴보니 장중경 논맥 편은 전체가 『상한론·평맥법』제1조에 실려 있는 문장과 같다. 편작음양맥법 편은 전체 분량 중 약 19%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소문·평인기상론』의 일부와 『난경·7난』의 일부에서 인용되었다. 편작맥법 편은 전체 분량 중 약 27%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역순오색맥장험정신』, 『폐석진법』, 『소문·평인기상론』, 『난경·14난』에 의미상 같

48) 王冰 次. 黃帝內經素問.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 [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人一呼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定息脈五動, 閏以太息, 命曰平人.”
 49) 作者未詳. 八十一難經.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 [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一呼再至曰平. …… 脈來一呼再至, 一吸再至, 不大不小曰平.”
 50) 王叔和 撰. 林億 等 類次. 陳居偉, 郭玉晶 校注. 脈經.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90. “人一息脈二至, 謂平脈.”
 51) 梁繁榮, 王毅, 李繼明 主編. 揭秘敝昔遺書與漆人: 老官山漢墓醫學文物文獻初識.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p.99. “人一息脈二動曰平.”
 52) 梁繁榮, 王毅, 李繼明 主編. 揭秘敝昔遺書與漆人: 老官山漢墓醫學文物文獻初識.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p.88. “脈再至”
 53) 김기왕. 고인들은 1분에 9회 빈도의 호흡을 하였는가? : “일만삼천오백식(一萬三千五百息)”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 진단학회지. 2017. 21(1). pp.1-12.

표 3. 전한과 서진 사이의 문헌에서 보이는 호흡대비 맥박 수 서술의 변천

문헌	호흡대비 맥박 수의 표현 (정상인)	정명(正名)* 전후
『역순오색맥장협정신』	1 호흡에 2번	전
『폐석진법』	2번	전
『맥경·권5 편작맥법』	1 호흡에 2번	전
『난경·14난』	1번 내쉴 때 2번 1번 내쉴 때 2번, 1번 마실 때 2번	후
『소문·평인기상론』	1번 내쉴 때 2번, 1번 마실 때 2번 호흡을 가다듬어 숨쉴 때 5번	후

* 식(息)의 의미가 호기(呼氣)에서 호흡(呼吸)으로 바뀐

은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편작화타찰성색요결 편은 전체 분량의 약 9%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소문·오장생성』과 『영추·논질진척』에서 인용되었다. 그리고 이 편 전체 분량의 약 17%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영추·한열』, 『소문·맥요정미론』에 거의 같은 형식의 문장으로 실려 있다.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 편은 전체 분량의 약 9%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난경·17난』에, 약 39%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소문·대기론』에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2. 장중경논맥 편은 ‘문왈’, ‘사왈’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중경 계열 문헌의 특징이다. 편작맥법 편은 ‘편작왈’이란 문답의 형식이 나타나는데 이는 편작 계열 문헌의 특징이다.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 편은 ‘편작왈’, ‘경언’, ‘연’ 같은 편작 또는 난경 계열 문헌 표현과 ‘문왈’, ‘사왈’, ‘사기언’ 같은 중경 계열 문헌의 표현도 함께 나타난다. 편작음양맥법 편과 편작화타찰성색요결 편에는 문답의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3. 『맥경·권5』의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 편에는 ‘경언’, ‘연’ 같은 편작 또는 난경 계열 문헌의 문답 형식이 두 단락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단락은 현행본 『난경·17난』에서 찾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단락은 현행본 『난경』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 두 번째 단락은 현행본 『난경』에 누락된 문장일 가능

성이 크다.

4. 『맥경』의 저작시기를 고려해봤을 때 『맥경·권5』에 수록되어 있는 편작 계열의 글들은 『한서·예문지』의 『편작내경』 9권과 『편작외경』 12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서·예문지』의 의경 중에서 『황제내경』 18권만이 현행본 『황제내경』에 계승된 것이 아니라 『편작내경』 9권과 『편작외경』 12권 역시 현행본 『황제내경』에 계승되었으리라 추측된다.
5. 편작진제반역사맥요결 편에는 간맥, 심맥, 비맥, 폐맥, 신맥에 대한 문장과 더불어 육부 중 유일하게 위맥(胃脈)에 관한 문장이 나타난다. 이는 전한 시기에 존재했던 간·심·위·폐·신(肝·心·胃·肺·腎)을 오장으로 간주하는 장부학설의 흔적으로 보인다. 위(胃)를 장(臟)의 하나로 보는 것은 편작학파의 특징 중 하나이다.
6. 『맥경·권5』에는 이상(異常) 맥상이 기준점에서 어디까지 떨어져서 나타나는가에 따라 질병의 예후를 판단하는 방법이 나타난다. 척 부위에서는 맥관의 크기가 크다가 관 부위를 지나면서 맥관이 가늘어지고 실해지는 것을 벽식이라 진단한다. 맥관이 가늘어지는 위치가 촌을 넘어 척 부위로 넘어갈수록 더 긴 시간 동안 형성된 벽이라고 진단한다.

7. 『소문·평인기상론』과 『난경·14난』에서는 1호흡에 4회 맥동 또는 1호흡에 5회 맥동을 정상인의 박동수로 제시하는 반면, 『맥경·권5』 편작맥법 편이나 『역순오색맥장험정신』, 『폐석진법』에서는 1식에 2회 맥동이 정상인의 박동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호흡 대비 맥박수가 문헌에 따라 다르게 된 것은 ‘식(息)’의 의미가 1회 호기에서 1회 호흡으로 바뀌면서 호흡대비 맥박수의 서술 방식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14. 張機. 桂林古本傷寒雜病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15. 張志聰 次. 黃帝內經靈樞集注.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References

1. 廖育群, 傅芳, 鄭金生 著. 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共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 서울. 일지사. 2007.
2. 王叔和 撰.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3. 王叔和 撰. 韓冰賢 新譯. 脈經新譯. 北京. 學苑出版社. 2007.
4. 王叔和 撰. 林億 等 類次. 陳居偉, 郭玉晶 校注. 脈經. 北京. 學苑出版社. 2014.
5. 김성호 외 3인. 扁鵲學派의 診斷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8. 31(3).
6. 杜鋒. 老官山醫簡中的“敝昔”與扁鵲名號. 名作欣賞. 2014. 487(8).
7. 방민우, 김기욱. 扁鵲脈法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3).
8. 成百萬, 朴炆. 脈經 卷三 五臟의 虛·實·賊·微邪에 따른 脈象과 病證에 對한 研究 II.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5. 9(1).
9. 呂茂東, 馮姍姍. 醫祖扁鵲其人其事新考. 管子學刊. 2019. 127(1).
10. 蔣力生. 略論《脈經》的學術成就與版本系統. 江西中醫藥. 2007. 38(1).
11. 黃龍祥. 扁鵲醫學特徵.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5. 21(2).
12. 王冰 次. 黃帝內經素問.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13. 作者未詳. 八十一難經. 湖南電子音像出版社.